

Haegue Yang × Lafayet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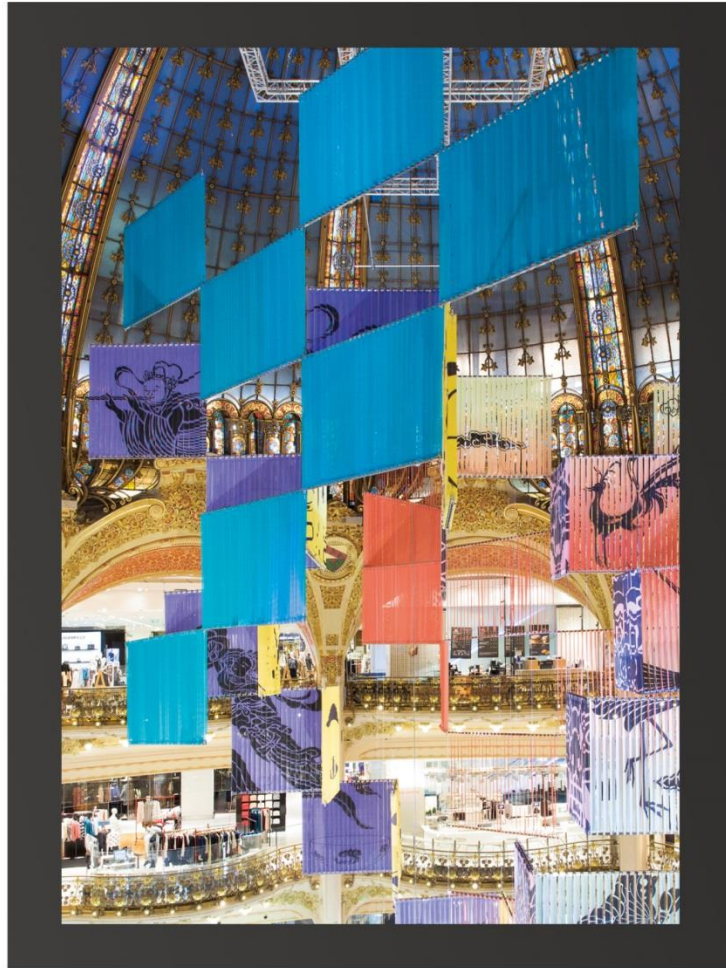
October , 2016

HERITAGE SCENE

# Haegue Yang × Lafayette

갤러리 라파예트 파리 오스만은 벨 에포크의 상징이다. 그곳에서 만난 양혜규의 좋은 시절.

EDITOR KIM MAN NA



파리 출장 중 풍피두와 갤러리 라파예트 파리 오스만에 갔다. 두 곳 모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양혜규의 설치작이 보였다. 대단한 건축물에서 한국작가의 작품을 만나 감격스러웠다는 촌스러운 감정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몽클했다. 인친의 부둣가 부근 폐가에서 (사동 30번지)라는 첫 개인전으로 그의 이름을 접한 것이 2006년. 한국 미술계라는 상상 초월의 극한 환경에서 월드 클래스 수준의 작가가 되기까지, 그 시절의 무게를 가늠할 도리는 없다. 다행히 작가에게 국제갤러리라는 전속 화랑이 있었고 아마 조금은 시간이 단축되었을 것이다. 사넬과 루이 비통을 사기 위해 줄이 50m나 늘어져 있고, 패션과 미스에 열

광하는 인파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었다. '그때'는 파리의 좋은 시절, 벨 에포크다.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주인공이 시간여행으로 만난 헤밍웨이와 피츠 제럴드가 존재했던. 경제와 예술이 고루 발전했던 파리의 좋은 시절. 유리와 철재로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돔 구조물 아래 늘어진 양혜규의 버티컬 블라인드 작업은 분주히 오가는 이들을 내려다보듯 도도했다. 본점뿐 아니라 프랑스 전역 51개 갤러리 라파예트에 쇼윈도 작업이 설치됐고, 작품이 미지를 반영한 쇼핑백 15만 개도 배포됐다.

라파예트 전역에서 펼쳐진 전시명은 <의사(擬似)-이교적 모던>. 양혜규의 쇼윈도 작업 전경. Courtesy of Galleries Lafayette, 2016

작품 사진 제공: 국제갤러리(02-755-8449)